

#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 일 시 : 2011년 2월 19일(토) 13:00-16:50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 주최 및 주관 : 대한운동사협회, 대한운동학회
  - 운동사평점 : 20점
-



#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일 시: 2011년 2월 19일(토) 13:00-16:5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주최 및 주관: 대한운동사협회, 대한운동학회

운동사평점: 20점

## 프로그램

13:0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사회: 강현주(순천향대학교)

인사말\_ 박종성 (대한운동사협회 이사장)

환영사\_ 강상조 (대한운동학회 회장)

[발제 및 토론]

14:10-14:30 발제\_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 (옥광, 충북대학교)

토론\_ 김정효 (신도봉중학교)

14:40-15:10 발제\_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

(김택천, 삼성고등학교)

토론\_ 문호준 (서원대학교)

15:20-16:10 발제\_ 운동학: 체육의 학문적 대안 (김정명, 명지대학교)

토론\_ 송형석 (계명대학교)

16:25-16:50 종합토론

(좌장: 정응근, 서울대학교)

# 개 회 사

---



존경하는 운동사 여러분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님, 전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운동사협회는 운동학(運動學)의 정체를 밝히고 운동사(運動師)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하여 사계의 권위자를 모시고 오늘 [2011 운동학 신년 학술 세미나]를 이곳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심으로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운동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배경으로서 운동학을 주창해 왔지만 그간 운동학의 필요성과 체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운동학의 의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운동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은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전공자의 직역 확대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새로이 신설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도 통과되어야 하고 운동사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문적으로 근거 중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수요를 통계자료로 제시하면서 혼연일체의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해당분야 전문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운동학의 학문적 체계와 체육과의 관계, 그리고 운동사의 역할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9일  
대한운동사협회 이사장 박 종 성

# 환영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에 참석하여주신 운동사 여러분, 관련학과 교수님 그리고 운동학(運動學)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학(運動學)은 인간의 운동과, 그것이 건강과 사회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일상적 움직임이나 노동활동, 스포츠활동, 표현활동 그리고 심신의 단련과 교정, 치료, 재활 등을 위한 운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운동학은 운동사(運動師)라는 전문가의 학문적 배경을 마련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운동학의 필요성과 체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토론될 것입니다. 이는 운동학의 의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세미나를 위해서 귀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발제자, 토론자 및 좌장선생님, 협회/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운동학회는 운동사의 전문성 신장과 운동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9일  
대한운동학회 회장 강상조

# 목 차

---

##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 ..... 1

발제: 옥광, 최석규(충북대학교)

토론: 김정효(신도봉중학교)

##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 .... 25

발제: 김택천(삼성고등학교)

토론: 문호준(서원대학교)

## ‘운동학’ : 체육의 학문적 대안 ..... 43

발제: 김정명(명지대학교)

토론: 송형석(계명대학교)

## 발제 1

#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

발제: 옥광, 최석규(충북대학교) ..... 3

토론: 김정효(신도봉중학교) ..... 20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

옥광, 최석규(충북대학교)

## I. 서론

예로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사교적인 만남을 위해 신체활동에 의한 기술과 능력을 과시하고, 흥분을 즐기거나 남에게 흥분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운동경기를 창안하였다. 인간의 신체 문화발전에 따른 스포츠(sport)의 생성은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고대사회의 운동 경기인 달리기·던지기·뛰어오르기와 같은 신체활동은 모두 기본적인 사냥 기술에서 발전한 것이며, 이러한 경쟁적 신체활동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수반한 놀이적 개념을 스포츠라 한다(이천희, 1996).

인간의 신체 문화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신체적 능력 배양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목적이었다. 고대사회의 생존을 위한 신체활동 혹은 제사(祭祀)나 집단적 행동들은 인간의 심동적(心動的) 영역이 드러난 행위적 현상이었다. 특히 인류문화의 원초적 본능을 드러낸 일리아스(Iliad)와 오딧세이아(Odyssey)는 군사적·종교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지만 호메로스(호머)시대(Homeric Age)부터 운동경기를 중시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스포츠의 범주는 인간움직임의 원초적 행위로부터, 신체활동의 즐거움과 경쟁성을 수반한 신체 문화로 조직화되었다(조경래, 2008).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한 경쟁적 신체활동의 능력이며(하남길, 2002), 스포츠를 통해 달성되는 궁극적 가치는 생생한 삶, 우월적 지위, 유능하다는 느낌을 내재한 존재감, 성취감, 우월감 등으로 나타난다(이진수, 1995).

따라서 스포츠의 본질은 종속으로부터의 탈출이며, 경쟁적 즐거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란 경쟁적 신체활동에서의 즐거움을 수반한 놀이적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광의적 개념에서 스포츠의 범주는 경쟁성을 지니지 않은 다양한 야외활동들까지도 스

#### 4. 발제 1.

포츠에 포함한다(하남길, 2002).

스포츠는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사회·문화적 현상의 일부로 인식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욕구충족과 경쟁적 신체활동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옥광·최석규, 2010). 즉, 스포츠는 산업의 발달에 의한 개인의 심리적 욕구증진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뜻하는 노동의 자유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이익과 결부되어 조직화, 경기체계화, 프로스포츠화 같은 합리화 과정을 통해(김은혜 외, 1995) 현대적 스포츠로 발전한 것이다.

현대스포츠는 경쟁적 스포츠로서의 메가 이벤트개최나 일상적 생활문화로서의 대중스포츠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특히, 현대인의 삶의 질 향상을 근간으로 한 인간성회복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사회문화적 욕구는 기하급수적인 스포츠 참여인구의 배가는 물론 스포츠스타의 양산과 스포츠의 국제화·과학화·상품화 등과 같은 스포츠산업의 외형적 발전에도 스포츠의 영향력은 증가하고 있다(가경환, 2004).

스포츠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사학자들에 의해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 등과 같은 여러 분야와 스포츠의 관련성 연구를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어 왔던 것(박기동 외, 1994)과 같이 스포츠범주의 다양성에 따른 관련학문간의 통섭과 학제 간 교류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의 근원인 스포츠어원의 용어적 원류와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 어원의 생성과 관련한 시대적 배경과 개념에 따른 역사성 정립을 통해 스포츠의 어원과 개념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스포츠의 어원과 변천에 대한 스포츠의 정의와 존재, 가치에 대해 분석하고; 둘째, 서양의 고대에서 근세사회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와 중세시대 스포츠라는 용어의 생성배경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따른 영국스포츠의 확산, 유럽스포츠 사상의 전파와 현대스포츠의 사회·문화적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1, 2차 자료의 문헌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주관적 논의(inter-subjective discussion)를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약된 결론은 향후 스포츠의 개념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I. 스포츠의 어원과 변천

### 1. 스포츠의 정의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을 뜻한다. 또는 그 뜻이나 개념이 속하

는 가장 가까운 집단체계 가운데 그것이 차지하는 범위로 규정한다. 즉, 종차(種差)를 들어 그 개념과 등위(等位)의 개념에서 구별하는 일. ‘사람은 이성적(理性的)인 동물이다’와 같이, 판명하려는 개념을 주어로 하고 종차와 최근류(最近類)를 객어로 하는 판단으로써 성립한다(Daum국어사전).

스포츠의 정의에 관한 논제에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의에 대한 방법론적 시각은 사전적·학술적·정책적 정의 또는 필요에 따른 조작적 정의에 의해 구분된다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어원의 조작적 정의는 스포츠가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나 영어로 변화된 시대적 배경을 유럽에서 서민들의 부분적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무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책적 정의의 관점에서 스포츠의 어원은 봉건사회 즉, 전제군주시대를 통해 억압받던 농민·기술자 등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달리고 뛰고, 해엄치며, 공을 차고, 힘겨루기 등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신체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곧 봉건시대의 계급적 차별에 따른 신분적 한계로 부터의 벗어남, 즉, 행동의 자유인 ‘해방’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어원에 관한 학술적 정의는 중세 로맨스어(Romance)<sup>1)</sup>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멜(Mehl, 1966)에 의하면 스포츠(sport)의 어원은 ‘운반하다’, ‘들고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desportare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것이 기분전환을 의미하는 동사 deporter나 desporter로 변화하여 남성명사 desport가 만들어졌고, 이 단어가 11세기경에 영국으로 들어가 disport로 변형되었으며, 13세기경 다시 프랑스어인 de(s) port=disport로 변화되었으며, 이어서 영어인 sporte로 사용되었던 것이 15세기 이후 두음이 사라진 sport로 변모되어, game이나 play를 뜻하는 국제 공통어가 되었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아울러 스포츠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Sport란 수렵 등에서의 노획한 것을 뜻하지만, disport는 ‘즐거다’, ‘즐겁게 놀다’와 같이, 일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단순적 개념으로서의 sport는 운동이나 경기를 뜻하고, 복수적 개념의 sport는 경기대회를 나타낸다(고두현, 1986)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의 Sport는 유럽중세 시기에 사용된 ‘desport’ 또는 ‘disport’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오정환, 2001). 따라서 스포츠의 용어적인 특성은 기쁨, 즐거움, 환희를 나타내는 오락적 요소와 즐거움을 통한 휴식의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었다 할 수 있다.

스포츠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기분전환을 뜻하는 ‘재미’ ‘농담’ ‘육외의 즐거움’으로 정의한다. 이어서 Sport의 명사적 의미는 운동, 경기, 사냥, 낚시, 경마 등을 뜻

1) 라틴어가 분화하여 이루어진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로마 제국이 망한 후 그 언어가 분화하여 형성된 것인데, 이 가운데 한 나라의 공용어가 된 것에는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따위가 있다.

## 6 발제 1.

하며, 동사적 의미는 놀다, 즐기다, 스포츠를 하다, 어린이나 동물이 까불다, 장난하다, 농락하다의 뜻으로 설명된다(두산동아).

프라임 영한사전(2008)은 sport의 명사적 용법에 대해 ‘스포츠’, ‘운동’, ‘경기’ 또는 ‘사냥’, ‘낚시’, ‘경마’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영국에서의 스포츠는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운동회, 경기대회를 뜻하며, 이는 오락과 재미(fun), 취미 그리고 위로하여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위안(慰安)’과 ‘유쾌한 친구’란 뜻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편 구어(句語)적 개념으로써 스포츠는 운동가, 수렵가(狩獵家), ‘노름꾼’, ‘야한 놈(playboy)’을 뜻하는 말로도 쓰였으며, 형용사로는 ‘스포츠의’, 자동사로는 ‘놀다’, ‘즐기다’ ‘장난하다’, ‘까불다’, ‘농락하다(with)’의 뜻과 ‘자랑삼아 뽐을 내는’ 구어적 표현의 타동사로 sport를 설명한다.

sport an athletic(especially outdoor) activity (see ill); any game or pastime; an outdoor pastime such as hunting or fishing, such activities or pastimes collectively; the world of sport; a meeting for competing in sports, especially athletics , amusement, diversion fun. a good fellow, a sportsman like type, to play, to amuse oneself, to wear or display ostentatiously(Oxford reference dictionary).

이상은 스포츠에 대한 옥스퍼드 사전의 설명이다. 먼저 체육적인 야외활동과 어떤 게임이나 오락, 그리고 사냥이나 낚시와 같은 야외에서의 기분전환과 더불어 집단적 유희활동과 같은; 스포츠의 세계; 과시적 드러냄을 내포한; 자신 스스로의 즐거움; 놀이; 스포츠맨과 같은 유형, 좋은 친구, 특별운동경기, 전환적 즐거움, 재미, 스포츠의 경쟁을 위한 모임들로 규정된 것이다.

‘움직임’과 ‘스포츠’의 개념을 비교할 때 ‘움직임’은 운동(運動) 즉, 인간의 원초적 신체활동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스포츠는 경쟁과 유희성을 띤 신체활동에 의한 사회적 현상과 지적인 활동 그리고 여가의 즐거움을 수반하는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었으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단지 경쟁과 즐거움을 동반한 신체활동이란 의미로 축소된 것이다(하남길, 2002).

결과적으로 스포츠어원의 학문적 정의는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미확정성, 규칙성, 경쟁성을 지닌 신체활동으로서 전술과 신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성을 추구하는 신체문화로 정의될 수 있다.

스포츠 어원의 인류학적 정의는 약속 및 룰의 제약 안에서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신체를 사용하는 활동이며, 문화의 구성요소로서 의례적으로 양식화 된 게임과 유사하고, 다양한 비율의 유희·노동·여가를 포함하는 운동경기적, 비운동경기적인 모든 형태를 갖는 신체활동의 총체로 설명된다(박기동, 1994).

스포츠의 통합적 정의는 ‘스포츠란 놀이의 요소에 경쟁성이 강화된 게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광의적 개념에서의 스포츠정의는 즐거움의 추구하고 기분 전환의 성격을 지닌 모든 신체활동을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하겠으나, 구체화된 현대적 스포츠의 의미는 대근활동(Gross Muscle Activity)과 연관된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신체 활동의 총체를 스포츠라 규정할 수 있다(김영환 외, 1992).

## 2)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

오늘날 스포츠의 가치의식이라는 논제는 새로운 스포츠 현상과 다양한 스포츠 가치 의식의 분화는 다원화된 사회구조와 함께 건전한 인간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관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가치의식은 개인 및 집단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올바른 바탕 위에서 스포츠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조재호, 1997).

스포츠인류학적 관점에서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문화적진화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생계유지형태로 규정한다. 이는 수렵채집에 의한 식량획득과 집단적 공동체를 통한 식량생산과 같은 생계유지방식이 곧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를 규정하는 구체적 요소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문화적 형태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조직과 노선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포츠는 지리학적 변수와 생태학적 변수에 따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박기동 외, 1994).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는 내재된 교육적 범주에 의한 스포츠의 역할에 기인한다. 예컨대, 스포츠의 신체적 가치는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과 즐거움, 체력향상 및 운동기능의 발달로 대별된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사회성 함양과 정신력 강화 측면에서의 교육적 가치를 내재하며, 이는 긴장해소와 정서순화에 따른 협동심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스포츠의 역할은 경쟁성을 동반한 경기자로서 훈련에 의한 경기력을 통해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스포츠상황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미를 깨닫는 단계적 경험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포츠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스포츠는 여가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으로써 고유의 스포츠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포함한다'고 한 1975년의 스포츠 포어 올(Sport for All)현장과 '놀이는 스포츠의 기본 성격이며, 단순한 놀이는 스포츠가 아니며, 계획된 놀이만이 스포츠이다'라고 한 칼뎀(Carl Diem), 그리고 '스포츠의 기본성격을 놀이라 하며, 놀이에는 경쟁적 요소가 결부되어야 하는데, 이는 탁월성을 추구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만 한다는 맥킨토시(P.C. McIntosh)의 주장에 이어 질렛(B. Gillet)의 견해인 '스포츠는 놀이, 경쟁, 신체활동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스포츠의 개념은 신체운동 주체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규정된다. 예컨대, 사냥이 즐기기 위

## 8 발제 1.

한 것이라면 스포츠가 되지만 생업일 경우는 직업이 된다. 또한 스포츠개념의 규정은 신체운동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는다. 즉,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사회의 일반 복지에 공헌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예종인, 2000). 스포츠의 개념에 관해 이진수(1995)는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오락의 일종이다. 스포츠는 직접적, 즉흥적인 즐거움, 기쁨, 환희이며 중용(spirit of moderation)과 관용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한편 경기는 본질적으로는 경쟁적 활동이다. 시합에서의 승리가 목적이며 헌신, 희생, 강렬한 정신이 특징이다(Keating, 1965).'란 주장을 논고에 인용하면서, 스포츠의 특징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스포츠의 경쟁적 요소는 '이기는 것은 중요하고도 유일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유럽의 고대역사에서 호메로스 시대의 스포츠적인 가치는 '행동하는 인간육성'이었다. 이는 호메로스 시대가 전쟁으로 점철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호메로스시대의 모든 시민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력, 지구력, 민첩성, 용맹성 등과 같은 자질이 요구되었으며, 특정한 교육기관이나 제도는 없었지만 자연적 조건에 알맞은 형태로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메로스 시대의 체육 목표는 행동하는 인간 즉, 실천적 인간의 육성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스파르타의 체육은 한 마디로 국가주의적 성격을 띤 군사적 체육활동이었다. 스파르타의 체육은 어린아이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군대식 조직 체계 속에서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훈련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스파르타식 훈련 방식이나 사상은 19세기 독일의 국가주의 체조운동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주의 체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세기에 접어들어서도 스포츠를 통해 국위 선양을 기도했던 러시아(구소련)와 많은 동구(東歐) 공산 진영 국가들의 스포츠 정책도 스파르타식 국가주의 체육을 모방한 형태였다. 이에 반해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 추구한 아테네의 지혜의 인간육성은 아테네 청소년의 성인 의식에서 행한 선서 내용에서 극명한 차이로 드러난다.

아테네인들은 '지혜의 인간'을 이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지적 교육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서는 '행동의 인간상'도 매우 중시하게 됨으로써, 체육적인 개념을 교육의 주된 영역으로 취급한 것이다. 특히 신체적인 훈련을 통하여 도덕적 발달은 물론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테네 체육은 고대 사회에서 심신의 조화적인 발달이라는 균형적인 목적 개념을 정립하고 체육을 실시하였다는 점에 깊은 의의가 있으며, 이 목적 개념이 현대 스포츠의 개념과 일치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하남길 외 2007).

상술한바와 같이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는 인간 활동에 의한 행위적 개념이며, 문화적진화과정은 생계유지형태로 구분하면서도, 조직과 노선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스포츠는 지리학적 변수와 생태학적 변수에 따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의 역할은 경쟁성과 훈련에 의한 경기력을 통해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좌절의 고통을

통해 스포츠상황과 자신의 한계에 대한 판단과 경기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게 하는 단계적 경험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 2. 스포츠의 원류와 시대적 유산

### 1) 고대적 유산: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

도시국가간의 평화와 우의를 다진 올림피아제의 종말은 바로 헬레니즘으로 단합된 도시국가 체제와 그리스 신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AD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275-337)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공인하였고,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346-395)가 392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기독교도들에게 제우스를 숭배·예찬하던 올림피아제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결국 올림피아제와 연관된 많은 시설물들의 파괴로 이어졌다. 다행히 피디아스(Phidias)의 최대 걸작이라고 불리던 황금과 상아로 만든 제우스의 신상은 비잔티움으로 옮겨졌으나 동로마제국의 멸망(476년)과 함께 소실되었으며, 그 외 올림피아의 신전이나 경기장의 많은 시설들도 데오도시우스 2세(Theodosius II)에 의해서 모두 파괴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서도 제우스 신전만은 그 일부가 개조되어 한 때 기독교의 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홍수와 지진의 여파로 인해 지금은 일부 골격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제우스를 주신으로 한 올림피아제(Olympia Festival)와 네미아제(Nemea Festival), 아폴로를 주신으로 한 피티아제(Pithia Festival), 그리고 포세이돈이 주신이었던 이스트미아제(Isthmia Festival)를 통해 헬레니즘문화를 형성했던 올림피아제(BC776-AD393)는 그리스도시국가간의 평화와 우의를 다지는데 긴요한 정치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전경기의 근본이념인 헬레니즘정신은 근대 올림픽의 부활과 함께 스포츠문화 형성의 근간으로 작용하였다(하남길 외, 2007).

상술한바와 같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전의 로마인들은 대제국건설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경기를 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검투사로서 양성한 노예나 죄인들의 생존을 담보로 상대를 죽이도록 하는 대리만족적인 인명살상경기나, 맹수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도를 살상케 하는 유혈적 연회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로마의 위정자들은 우승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을 건 전차경주를 벌이게 하는 등의 열광적 유혈스포츠를 통해 로마시민의 불만적 욕구충족해소에 몰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로마의 역사중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로마 국교로 받아들인 후 데오도시우스 2세에 의한 다른 종교의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형식적으로나마 행해지고 있었던 제우스의 제전마저도 종말을 맞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마교회와 중세교회들의 심신이원론적인 교의는 로마의 유혈관중스포츠와 같은 육체적 쾌락을 비하하였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정신적 수양

을 전제로 한 성경이론만을 존중했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성장과 함께 용병의 군사훈련 이외에 시민의 육체를 통한 체육활동은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이행순, 1981).

## 2) 중세사회와 스포츠문화의 전통

중세의 여명은 도덕성이 상실된 로마사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로마의 대제국 건설은 로마시민의 희생에 따른 결과였지만, 물질적 풍요에 따른 향락적사치문화의 만연과 우월적 지위향상에 의한 나태함으로 인해 전기로마의 장대했던 조직은 점차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북방으로부터 야만적인 정복자로 불렸던 게르만족들이 훈족의 침입을 피해 로마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 결국 로마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중세시대도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게르만의 침입에 따른 전쟁의 공포와 혼돈사회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던 중세 초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유일하게 붕괴되지 않은 것은 교회뿐이었다. 이러한 교회의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미쳤으며, 교회가 모든 문화를 보호하고 지도권을 유지함으로써 흩어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럽의 중세 시기는 극도로 엄격한 금욕주의 사상과 심신이원론적신체관의 확산으로 인해 신체유희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중세교회는 신체적 활동과 안락을 죄악시했다. 이로 인해 유럽의 중세 시기는 유희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중세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호하는데 필요한 신체문화만이 존재했을 뿐이었다(옥광, 2006).

따라서 중세의 스포츠현상은 자발적인 참여를 담보한 자유 또는 시공간적인 면에서 한정된 것이며, 이는 현실세계로부터도 분리된 것으로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비생산적이고 비 실리적인 규칙에 의한 통제가 원칙이란 것이다. 특히 중세교회의 심신이원론적신체관에 의한 스포츠는 심신이 분리된 허구적 개념으로서 현실적인 신체문화생활과 격리되어, 모방적 행위만을 드러내는 특성을 지닌다(이진수, 1995)는 것이다.

1066년 잉글랜드를 점령한 노르만인들은 북쪽의 원주민이었던 켈트족의 스코틀랜드와 서쪽의 웨일즈와의 전투를 통해 대략 630년경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웨일즈(Wales)의 장궁(長弓, longbow)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장궁의 우수한 성능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효율적인 무기로 인식됨에 따라 잉글랜드는 1066년 무장조령(Assize of Arms)을 발표하고, 국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들에게 장궁의 보유를 의무화했던 것이다.

영국의 에드워드 1세(Edward I, 1272- 1307 재위)는 7세 이상의 모든 소년들에게 궁술훈련을 시키도록 조령을 공포한 것을 비롯하여 장궁훈련이 유일한 오락이 될 수 있도록 볼링이나 집단 축구 등의 볼게임이나 짐승학대 유희관중스포츠를 법으로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토지 수익금

이 40실링이 넘는 사람은 누구나 장궁을 비치해야 했으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궁술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러한 장궁의 보급과 훈련은 이후 백년전쟁에서 잉글랜드가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신용석 역, 1992)

이와 같이 에드워드시대 영국 남성들은 모두 긴 활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일요일에도 교회 일이 끝나면 마치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모두들 활들 들고 연습장으로 모여들었다. 이러한 풍조는 교회와 국가를 지키고자 했던 영국인들의 자발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영국의 활과 화살은 튜터(Tudor)시대 이전까지 세계최고로 인식되었다. 또한 궁술이 결코 군사적인 훈련목적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성들도 사슴이나 동물을 쏘았다는 것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함께 중세 잉글랜드 스포츠가 기사를 제외한 대중 사회에도 뿌리내려갔음을 의미한다(Wymer, 1949).

중세교회들의 신체문화에 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쟁수단이었던 활쏘기를 비롯한 로마의 대중적 신체문화와 함께 이미 뿌리 깊게 토착화된 다양한 서민들의 놀이문화도 함께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들의 군사체육을 비롯한 귀족들의 사냥과 같은 신체활동들은 고대 올림피즘의 전승과 중세스포츠문화계승의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체적 유희문화는 중세교회의 금욕주의적 신체관에도 불구하고 중상류계급 출신의 귀족, 기사, 성직자들의 신체활동을 통해 전승되었으며, 평화 시에도 전쟁승리를 위한 활쏘기훈련을 통해 심신단련과 체육활동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 중세교회에 의한 신체활동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세 잉글랜드 상류사회의 신체문화는 결코 기독교적 신체관에 억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았으며, 로마와 색슨의 전통적인 신체유산을 충실히 계승·보존했던 것으로 드러난다(옥광, 2006).

13세기 이후 유럽 도시들은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중앙군주 역시 정치, 경제적 이유로 도시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에 앞장섰다(나현성, 1983). 그 결과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급적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다. 예컨대, 도시의 발전에 따른 계층형성에 있어 신흥 도시귀족으로는 산업자본력을 앞세운 대상인, 대공장주등이었고, 중류계층은 길드(guild)<sup>2)</sup>를 형성한 수공업자들과 도시방위와 치안을 담당하던 기사계층이었다. 한편 최하위층은 노동자 계급으로써 일일 노동자나 곡예사 등과 같은 농촌출신들이었다(寒川恒夫, 1991).

이와 같은 봉건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환경과 길드, 중류계층의 경제력, 조직력을 배경으로 다양한 시민제가 개척되었고 그러한 행사에는 필수적으로 무예 성격의 신체활동이나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13세기를 전후하여 중세후기에는 도시

2) 중세시대, 상공업자들이 만든 상호 부조화적인 동업 조합.

인구의 증가와 봉건사회의 와해분위기로 인해 민중들의 신체유희가 각종 축제나 농촌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이 드러난다. 이와 함께 중세 잉글랜드의 왕실과 상류계급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스포츠가 점차 중하류층사회로 확산되는 양상과 민중사회를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저층문화와의 계급적 경계가 상실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것(옥광, 2006)으로 드러난다 하겠다.

이러한 도시발전에 따른 계급적 계층형성의 상실과 더불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어울리는 용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이를테면 고대봉건왕조사회 즉, 전제군주시대를 통해 억압받던 농민·기술자 등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달리고 뛰고, 해엄 치고, 공차고, 힘겨루기 등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엄하고 가혹한 작업이나 노동에서 벗어난 '기분전환'의 뜻을 담은 말이 필요했던 것이다.

서양의 중세는 고대 사회에 비하여 신체문화가 더 활성화되지는 못했으나 절대로 소멸된 것은 아니며, 계층별로 다양한 신체문화가 존재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세 왕실이나 교회에서는 신체적 유희를 비난하거나 금지했던 것은 사실이며, 중세 이전의 고대 그리스나 로마시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양성과 대중성에 있어 미비하였다. 그러나 상류층을 물론 시민과 농민사이에서도 다양한 신체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졌다. 신체활동을 금지를 하였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신체활동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시사해주는 것처럼 인간의 움직임과 놀이에 대한 욕구는 사라질 수 없었던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중세는 체육의 암흑시대였다는 단편적인 해석 위에서도 중세 신체 문화사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하용용·옥광, 2006: 53).

### 3) 단련주의 스포츠(Sport Disciplinarianism)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문예부흥운동시기 즉, 르네상스시대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을 일컫는다. 이는 도시의 발달과 상업 자본의 형성을 배경으로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반(反)중세적 운동이었으며, 문학·미술·건축·자연과학 등 유럽 문화의 근대화에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대하여 일어난 개혁 운동을 일컫는다. 이는 1517년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사이면서 신학교수인 루터가 마인츠대주교를 향해 95개조항의 반박문을 제시하여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16세기 신교도들에 의해 시작된 종교계의 지각 변동은 도덕주의에 바탕을 둔 체육·스포츠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7세기는 종교적, 세속적 혼돈 상태에서 이성과 권위, 자유와 전제 사이의 투쟁이 치열한 시대였으며, 교육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주도한 교육 사조가 ‘단련주의 교육(Educational Disciplinarianism)’이었다. 존 로크의 단련주의 개념은 젊은 귀족 신사에게 세련된 몸가짐과 고상한 성격을 소유하기 위한 여러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로크의 계몽사상에 입각한 단련주의교육은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자연주의(Naturalism)사상과 함께 근대 체육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상술한바와 같이 고대 단련주의 스포츠는 존로크(John Locke, 1632-1704)의 계몽주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어서 17세기의 종교적 혼란으로 인해 합리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격렬한 투쟁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1517년 아우구스티누스회의 수도사이면서 신학교수인 루터가 종교개혁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부상한 상인계급들은 자본력을 앞세워 봉건왕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 3. 스포츠문화의 확산

#### 1) 영국의 ‘팀플레이’

산업혁명에 이은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은 영어를 국제공용어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프랑스인 쿠베르탱이 주도한 근대올림픽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영국스포츠가 국제스포츠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만한 영국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감에 따른 심리적 이유 즉, 내셔널리즘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영국의 팀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게임들이 체조중심의 유럽 체육보다 더 흥미롭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하남길 외, 2007).

한편, Mangan(1986)은 ‘스포츠에 관해서는 그것이 단지 영국제도에 비해 오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오래된 것 또한 아니며, 그 놀이의 기저는 생존유지에 필요한 기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단순한 놀이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천희(1996)는 ‘스포츠는 즐거움을 동반한 신체활동 즉 대근육 활동(Big muscle Activity)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스포츠란 유희의 한 현상이다’라고 정의한 Carl Diem과 영국의 스포츠 사회학자인 P. C. McIntosh가 ‘스포츠의 기본적 특징은 승리에 대한 노력이다’라고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 2) 계몽주의와 범애주의 체육

체조를 통한 유럽 국가들의 스포츠체계화는 18세기 개인의 구속에 대한 철학적 쟁의와 비판

적인 시각이 뚜렷해진 계몽사상(啓蒙思想, philosophy of enlightenment)의 전개시기인데, 그 사상적 기반은 17세기 데카르트(1596-1650), 스피노자(1632-1677), 라이프니츠(1646-1716)의 합리주의와 존로크(1632 -1704)의 경험주의철학 사상, 그리고 뉴턴(1642 -1727)의 만유인력과 같은 과학자들의 우주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싹튼 계몽사상은 유럽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18세기 중엽 독일의 이성주의적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실천에 옮긴 범애주의(the Philanthropium) 교육이 등장하였다. 범애주의 교육은 범애주의자(The Philanthropist)인 바세도우(J.B. Basedow, 1723- 1790)<sup>3)</sup>가 학교를 설립하고 그 이름을 범애학교라고 칭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독일 체조운동은 쉬네펜탈교육대학(Schnepfenthal Education Institute)을 세운 찰즈만과 구즈무츠에 의해 근대적인 체육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독일의 국가주의 사상과 결속되어 전세계적인 범애주의 체육 체계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 3) 고대 올림픽아제의 부활과 스포츠의 역할

일반적으로 공업화·도시화한 현대사회에서는 신체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기능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감을 표시한다. 아울러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광의적 개념 역시 더욱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스포츠는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과 문제를 수반하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현실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현대사회가 스포츠의 가치를 직시함으로써 스포츠를 사회통합적인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이창섭·남상우, 2008).

오늘날 대중문화로서의 스포츠는 고도의 경기능력을 지닌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며, 각종스포츠가 다양화되었다는 점과 특히 프로페셔널화 된 스포츠가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치 또한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사회·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스포츠의 고도화와 대중화를 어떻게 결부시켜 나가느냐가 미래사회의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생존의 욕구와 용기를 주고, 여가(餘暇, Leisure)를 선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정신과 육체를 결합하여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도(道)’를 훈련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장수할 수가 있으며, 노년 이후의 건강한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평생체육은 물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문제까지도 해

3) 범애주의는 바세도우라는 한 억지 이론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의 별명은 벤딕슈(Wendish: 벤드족)였고, 게르만과 슬라브의 혼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열성적인 전인교육의 옹호론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한다. Peter McIntosh, *Fair Play: Ethic in Sport and Education*(London : Heinemann, 1979), pp. 43-44.

결해줄 수 있는 역할을 분담한다(이천희, 1996).

오늘날 행해지는 대부분의 경쟁적인 스포츠는 고대와 중세시대에 기원을 둔 경쟁적 신체활동들이 오랜 세월동안 점진적 정제된 형태로 전승된 것이다. 이렇듯 현대스포츠는 생존을 위한 고대사회의 인간 활동에 뿌리를 둔 것으로써, 중세와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조직화된 스포츠로 변화되었다(옥광, 2008). 현대인들의 스포츠생활화는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자아실현(self realization)'과 인간의 절대적 욕망인 행복추구에 의한 질적인 삶(quality of life)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인간의 심신을 조화롭게 집중시켜 인간의 삶 자체를 밝고 맑게 해줄 수 있는 스포츠를 통한 '도(道)'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개인 스스로의 자신감 형성은 물론 생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힘을 배가시켜 모든 이를 위한 스포츠로서의 존재가치를 뚜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이천희, 1996).

### 3.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현상

#### 1) 스포츠맨 십

고대사회의 자위적이며, 공동체적인 순수스포츠정신을 계승한 아마스포츠의 다양성에 따른 개념의 변화는 스포츠를 통한 기쁨이나, 즐거움 창출에 대한 욕구와 심신상관론(心身相關論)<sup>4)</sup>적인 사고증진과 함께 스포츠매너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로 재인식되었다. 예컨대,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개인능력의 자립적인 전개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내어 그것을 발전시키는 형이상(形而上)으로써 윤리적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은 스포츠맨이 지켜야할 윤리적인 규범을 일컫는 것이다.

다음은 194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올림픽 위원회의 경기자와 관중의 행동기준에 대한 제정내용이다.

스포츠를 애호하며 행하는 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경기 연습을 하지 않는 자, 코치나 선배의 말을 달게 받는 자, 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 부정하지 않으며 정정당당히 이기는 자, 운동장을 떠나서 사회생활에서도 공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 자기 팀이 경기하지 않아도 깨끗이 응원을 할 수 있는 자, 경기장 내외를 막론하고 언제나 품위를 갖고 정중히 행동할 수 있는 자, 승리와 패배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자, 심판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나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 자기편의 선수나 상대편 선수를 아껴 줄 수 있는 자, 언제나 공평하게 응원할 수 있는 자 - 스포츠맨 규정(1949)

4) 마음의 움직임이 생명 활동의 움직임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론. 기쁨이나 노여움을 느끼면 신체에도 그것에 대응하는 상태가 나타남을 이른다.

이러한 스포츠맨 규정에 대해 쉘펠린(Schieffelin)은 첫째, 페어플레이를 하라. 둘째, 깨끗하게 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셋째, 경기 규칙에 따라 부정한 마음이 없이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 경기하라. 넷째, 패했을 경우 변명을 하거나 자기의 결점을 상대방이나 심판에게 돌려서 불평을 하느니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패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대사회는 인기스포츠의 프로화에 따른 극렬 스포츠팬들의 광적인 응원 열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포츠맨십을 근간으로 한 프로스포츠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즐거움과 함께 스포츠에서만 누릴 수 있는 대리만족의 기회를 제공한다. 때문에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상술한 스포츠맨 규정(1949)을 통해 설명된다. 즉, 경기자는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경기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며,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고, 승자를 원망하지 않으며, 원정 팀을 우선 대우하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상호교류와 겸손과 배려의 도덕성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은 특히 지역, 집단,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존중의 도의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스포츠맨십의 근간인 페어플레이야말로 갖가지 반칙과 부정행위가 난무하는 스포츠현장에서의 그릇된 풍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포츠맨 규정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기량을 겨루는 경기인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상호불신, 이기주의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사회의 협동 정신을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다.

나아가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라는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스포츠윤리와 도덕성의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다. 이것은 물질주의 이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혼돈이나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의 파괴, 또는 승리제일주의나 메달지상주의가 가져온 가치관의 붕괴와 사회질서의 혼란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혼돈과 일탈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스포츠맨십을 기본으로 한 페어플레이정신의 고양이라 할 것이다.

## 2) 아마추어리즘

Amateur는 라틴어인 Amatorem과 프랑스어인 Amatore(love) 또는 Amatre(to love)에서 온 말이다. 영어로는 15세기경부터 사용되었으나 현재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 것은 19세기 말경이었으며, 당시 아마추어란 전문가나 숙련자에 대비되는 소인(素人), 미숙자(未熟者), 애호가(愛好家, devoted)를 일컫는 말이었다(하남길, 2002).

한편 1803년 발행된 옥스퍼드 사전(The Oxford Dictionary)에서 아마추어란 무례한(impolite,

ill-mannered) 것에 반(反)하는 세련된(polite)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마추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귀족들의 이상인 ‘예의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코티어(courtier)’와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19세기 잉글랜드의 젠틀맨(gentleman)과도 비교되는 말인데 비해, 랜덤하우스 영어사전(Random House English Dictionary)의 아마추어에 대한 설명은 첫째,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즐거움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 둘째 금전적인 보수나 부상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경기자, 셋째 특별한 활동에 숙련되지 않은 자로 정의하였다(시사영어사, 1992).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포츠맨이란 곧 상류계급 즉, 젠틀맨(gentleman)을 상징하였고, 아마추어(amateur)는 프로와 상반된 직업적이지 않은 애호가를 호칭하는 말이다(프라임 영한사전, 2008). 스포츠의 참여는 순수한 여가 생활의 일부였으며, 오늘날의 스포츠나 국가주의 사상을 토대로 성장한 엘리트 스포츠처럼 참여의 의무나 강제성은 전혀 없는 것이었다(하남길, 1996). 이에 관하여 IOC는 1962년 아마추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1967년 올림픽 참가규정을 통해 아마추어 참가자들의 자격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아마추어란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스포츠가 취미인 사람들을 뜻한다. 아울러 명문프로팀이나 실업팀에 입문하지 않은 무보수 새내기스포츠선수들에게도 사용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스포츠에서의 아마추어 정신이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건전하게 하며, 스포츠를 취미나 오락으로 즐기기에 있어서 스포츠에 종속됨이 없는 ‘비전문가’로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3) 프로페셔널리즘

프로페셔널 스포츠(professional sports)는 아마추어 스포츠와 달리 금전적 보수의 지불 유무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프로페셔널리즘의 확산은 영국의 조정경기와 육상경기에서 아마추어 규칙이 성립된 이후부터인데, 19세기 후반 근로자 계급을 필두 한 스포츠의 보급에 따라 제한된 공간에서의 경기를 통해 입장료를 받는 ‘게이트머니스포츠(gate money sports)’와도 흡사한 것이다(김명수, 1974).

본격적인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사회형성 이후부터인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자본력을 앞세운 신흥부르주아들이 전통적인 귀족계급과, 신사계급인 젠틀리(gentry)들로만 구성된 상류사회에 끼어들면서, 상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경마, 복싱 등이 각광받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인기스포츠화 함으로써 상업화 즉, 프로화 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페셔널리즘은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인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인식은 고대 로마인들의 광적인 유희스포츠의 선호와도

비견된다 하겠다. 예컨대, 해외클럽에 진출한 인기스포츠스타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마다 이들에 대해 열광하는 것은 고대국가에서의 프로페셔널리즘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은 금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를 뜻한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 스포츠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스포츠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거나, 상금이 걸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며, 스포츠지도교실이나 스포츠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금전적 스포츠행위를 포함하는 스포츠상업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 Ⅲ. 결론

본고는 스포츠어원의 생성 원류와 변천에 관한 시대적 배경과 개념에 따른 역사성 정립을 통해 스포츠의 어원과 생성배경을 보다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스포츠의 어원과 변천에 대한 스포츠의 정의와 존재, 가치에 대한 탐구 결과 스포츠는 지적인 활동과 신체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스포츠의 개념은 '여가의 즐거움을 수반하는 야외활동'에서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인식 되었다. 스포츠의 정의 구분에서 정책적 정의는 봉건시대의 계급적 차별에 따른 신분적 한계로 부터의 벗어남, 즉, 행동의 자유인 '해방'을 표현한다. 또한 학술적 정의는 중세 로맨스어(Romance)로부터 비롯된 것과 운반하다, '들고 가다'의 프랑스어인 *desport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스포츠어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 따라 스포츠어원의 조작적 정의는 스포츠가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나 영어로 변화된 시대적 배경을 유럽에서 서민들의 부분적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한 무렵으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스포츠인류학적 관점에서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문화적진화과정은 생계 유지형태로 규정하였다. 스포츠의 존재와 가치는 내재된 교육적 범주에 의한 스포츠의 역할에 기인한다.

둘째, 유럽중세의 체육사상을 중심으로 스포츠의 역사와 올림픽즘의 부활에 대해 고찰한 결과로 관중스포츠의 체육사적 의미는 중세 기독교인들이 체육 및 스포츠를 금기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관중 스포츠 는 근대 스포츠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심신이원론적인 신체사상을 신봉한 중세교회는 신체적 활동과 안락을 죄악시하였다. 이로 인해 유럽의 중세 시기는 유희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단지 중세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수호하는데 필요한 신체문화만을 존립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는 고대 사회에 비해 신체문화가 활성화 된 것으로 아니었지만 소멸된 것은 아니며, 계층별 다양한 신체문화가 존재했

다. 중세 왕실과 교회는 신체적 유희를 금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상류층은 물론 서민사회에 신체문화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셋째, 영국스포츠의 확산은 팀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게임들이 체조중심의 유럽 체육보다 더 흥미롭다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체조를 통한 유럽 국가들의 스포츠체계화는 개인의 구속에 대한 철학적 쟁의와 비판적인 시각에 의한 계몽사상(啓蒙思想, philosophy of enlightenment)의 전개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대스포츠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스포츠맨십을 근간으로 한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의 몰락에 비해 보다 더 상업성이 강화된 프로페셔널리즘의 만연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인식이 요구된다하겠다.

## 참고문헌

- 가경환(2004). 매스미디어의 스포츠 스타 보도 형태와 스포츠커뮤니케이션행위에 대한 소비자 수용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고두현(1986). 국민체육과 올림픽. 계간경향, 통권 13호, 경향신문사.
- 김명수(1974). 스포츠 백과대사전. 서울: 예조사.
- 김영환 외(1992). 체육원리의 비교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 김은혜, 장용규, 정웅근(1995). 체육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스포츠의 의미탐색.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논집, 16(2), 109.
- 나현성(1983). 한국체육사. 서울: 교학출판사.
- Daum국어사전(2011.1.14 검색). <http://krdic.daum.net>
- Daum카페(2011.1.15 검색). <http://cafe.daum.net/newseconomic>,
- 마채리(2009). 스포츠 메가이벤트와 SOC의식변화 및 스포츠문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기동, 이준수, 이강우, 강태봉(1994). 스포츠 인류학. 서울, 동문선.
- 예종인(2000). 체육원리신강. 서울, 형설출판사.
- 옥광(2006). 영국 스포츠문화의 중세적 전통.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1-16.
- 이진수(1995). 스포츠 철학. 서울, 교학연구사.
- 이창섭, 남상우(2009). 스포츠사회학. 대전, 궁미디어(충남대학교 출판부).
- 이천희(1996). 스포츠의 철학적 탐구. 서울, 천풍전산인쇄사.
- 이행순(1981). 체육백과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최태경(2008). 프라임영한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 조경래(2008). 미국 스포츠 문화의 발달 과정과 배경.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재호(1997). 스포츠 價値意識에 影響을 미치는 關聯變因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태경(2006).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 하남길(1996). 영국신사의 스포츠와 제국주의. 서울, 21세기 교육사.
- 하남길 외(2007).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경남: 경상대학교 출판부.
- 하웅용, 옥광(2006). 서양 중세 스포츠 문화사: 계층별 신체문화의 유형. 한국체육사학회지, 17, 43-56.
- Andre M. 신용석 역(1992). 영국사. 서울: 기린원.
- Carl Diem(1949). *Wesen und Lehre des Sports*.
- E. Mehl (1966). Sport Kommt Nicht Von Disportare, Sondern Von Deportar(Leibeserziehung).
- James W. (1965). Keating Keating.
- Mangan, J. A. (1986). Sport and the making of Britain,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history of sport series.1-2.
- K. 블랑차드 & A. T. 체스카, 박기동 외 옮김(1994). 스포츠 인류학, 서울: 동문선.
- Wymer, N (1949). Sport in England, London: George G. Harrap & Co. Ltd.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 에 대한 토론

김정효(신도봉중학교)

스포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것에 대응하는 학문적 입장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철학, 역사, 사회학, 심리학, 자연과학 등은 스포츠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방법론은 해를 거듭할수록 세분화,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이해는 크게 보아 본질론적 접근과 현상론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본질론적 접근이 스포츠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현상론적 접근은 이미 존재하는 스포츠를 하나의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 몰두한다. 본질론적 접근은 다시 개념론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철학적 작업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역사학적 작업에 해당한다.

『스포츠의 용어적 원류: 중세적 전통』은 스포츠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세시대의 스포츠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다. 특히 이 논문은 역사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포츠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해 철학과 역사를 동시에 보고자 하는 대범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먼저 스포츠의 좌표를 “산업의 발달에 의한 개인의 심리적 욕구증진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뜻하는 노동의 자유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이익과 결부되어 조직화, 경기 체계화, 프로스포츠와 같은 합리화 과정을 통해”(p.1) 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원이 되는 스포츠의 어원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포츠 어원의 생성과 관련한 시대적 배경과 개념에 따른 역사성 정립을 통해 스포츠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려 한다.

이 논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구성은 크게 1. 스포츠의 정의, 2. 스포츠의 원류와 시대적 유산, 3. 스포츠문화의 확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스포츠의 정의에 있어서 “허구성, 비생산성, 분리성, 미확정성, 규칙성, 경쟁성을 지닌 신체활동으로서 전술과 신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탁월성

을 추구하는 신체문화”로 간주하고 이것이 갖는 존재가치를 “교육적 범주에 의한 스포츠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 즉 건강과 즐거움, 체력 향상, 운동기능의 발달을 그 구체적인 예로 들면서 이에 따라 협동심, 준법성, 책임감 등이 함양된다고 본다.

스포츠의 원류와 시대적 유산은 근대스포츠의 출현 이전까지의 서양스포츠의 역사를 개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로마시대의 스포츠의 특성과 소위 스포츠의 암흑기로 불리는 중세 스포츠의 성격을 영국의 장궁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설명한 다음 ‘단련주의 스포츠’를 짧게 언급하고 있었다.

스포츠문화의 확산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계몽주의가 스포츠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했다는 일반적인 사실의 지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키워드를 통한 개론적 설명에 머물러 필자의 의도하는 바를 간파하기 어려웠다. 끝으로 필자는 스포츠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스포츠맨십과 아마추어리즘, 프로페셔널리즘을 근대스포츠의 공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스포츠에 대한 개념론적 접근과 역사적 접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념 자체가 역사로부터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몇 가지 점에서 이 논문은 이해의 어려움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주제와 논의의 전개가 지나치게 방대한 점을 들 수 있다. 스포츠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전반부의 서술과 중반부의 중세스포츠, 그리고 중반부의 근대스포츠와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양 스포츠의 역사적 과정 전체를 개괄해 버림으로써 논의 자체가 방대하게 흘러 필자의 정확한 의도를 간파하기 어려웠다. 차라리 중세의 스포츠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역사적 과정에 집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왜냐하면 이왕의 논문의 타이틀이 중세적 전통이라면 논의의 집중도에 있어서도 그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역사 기술에 있어 중세와 근대의 질적 차이는 매우 깊고 크다고 사료되어진다. 그러나 필자는 중세와 근대 스포츠의 질적 차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은 정당한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보다 구체적인 비판으로는 p.4에서 언급한 독일의 국가주의 체조운동이 스파르타식 훈련 방식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독일의 국가주의 체조운동의 이념은 스파르타가 아니라 그리스의 체육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나영일 등이 번역한 구츠무스의 『청소년을 위한 체육』에 따르면 독일의 체조운동은 게르만족과 그리스인과의 유사성을 강조하면서 그리스적 전통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세의 스포츠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엄격한 금욕주의 사상과 심신이원론적 신체관의 확산으로 인해 신체 유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었고, 신체활동을 최악시 하는 교회의 영향

과 이를 확대하고 수호하는데 필요한 신체문화만 존재했었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장궁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논의에서 “중세교회들의 신체문화에 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쟁수단이었던 활쏘기를 비롯한 로마의 대중적 신체문화와 함께 이미 뿌리 깊게 토착화된 다양한 서민들의 놀이문화도 함께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함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신체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특히 중세 잉글랜드 상류사회의 신체문화는 결코 기독교적 신체관에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았으며, 로마와 색슨의 전통적인 신체 유산을 충실히 계승, 보전했던 것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13세기 이후 도시의 발전과 계급의 분화로 인해 신체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표출되었다는 지적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중세의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깨트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필자의 지적대로 중세를 체육의 암흑시대로 보는 단편적인 해석은 경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암흑시대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논리적 모순이라는 느낌이 든다. 요컨대 중세의 스포츠문화를 거대담론으로 수립시킬 것이 아니라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민중의 투쟁, 혹은 저항의 문화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필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다.



## 발제 2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

발제: 김택천(삼성고등학교) ..... 26

토론: 문호준(서원대학교) ..... 38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

김택천(삼성고등학교)

## I.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체육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허다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육(physical education)이란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운동(exercise)로, 어떤 때는 스포츠(sport)로, 어떤 때는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라는 의미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체육 관련 기관의 영문표기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으로, “대한체육회”는 “Korean Olympic Committee”로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체육이란 용어를 규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체육의 실체와 현상에 대한 ‘내재적 관점’이 서로 달라서 생겨나는 문제이다. 즉 체육은 사용자의 내재적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그 개념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처럼 체육의 개념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혼재되어 사용되어 있어 체육의 개념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에 따라 신체와 관련된 교육활동으로, 의도적인 신체 활동으로, 경쟁적인 신체활동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떤 신체활동이든 몸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어떤 의도나 목적이든지 체육은 몸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몸’은 체육에 있어 변동될 수 없는 본질적인 실재(essential reality)라는 사실이다(장성수, 2010). 하지만 ‘몸’을 물질적인 신체 즉, 육체(body)로 여기는지 혹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신체(living body)로 보는지에 따라 체육의 개념은 달라진다. 몸을 육체(body)로 보면 체육은 인간 육체적 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신체 가꾸기(physical culture), 신

체 단련(physical training)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몸을 영혼이 깃든 신체(living body)로 보면 “체육은 건전한 생활에 요구되는 즐거움이나 건강 등을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한 삶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된 문화적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을 육체와 정신이 결합된 인간 움직임(human movement)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체육과 체육교육’, ‘운동의 개념’과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체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논의하고자 한다.

## II. 체육과 체육교육

체육의 목적에 의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변해왔다. 원시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신체활동으로, 고대국가에서는 종교적·군사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회 안전과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으로, 로마시대에는 전투력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중세에는 기사의 신체단련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르네상스시대에는 신체훈련을 통해 인간형성을 위한 신체활동으로 체육이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현대에 이르러 체육은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 움직임 교육(movement education), 인간 움직임(human movement) 등으로 체육의 개념이 변천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의 본질과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체육의 개념이나 체육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학문적 체계나 그 범주를 구체화하려는 태동이 시작된 19세기 이후 현재까지 체육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공통의 함축적인 일반화된 개념 정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함정혜, 1996). 왜냐하면 운동, 스포츠 등 유사한 개념의 관련 용어와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으며 체육의 본질적 매개인 신체를 자연과학적으로 국한하여 육체(body)로 보는 경향 때문이며 아울러 체육의 개념이 갖는 내재적 내용과 체육의 개념을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간과하고 정립된 개념의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을 교육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고정적인 사고 틀에서는 체육과 혼용하여 사용되는 운동이나 스포츠를 교육적 개념인 체육과 다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상황에서는 체육을 스포츠와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신체활동에서 신체는 물리적인 신체를 넘어선 인간의 의도가 깃든 행위임에도 학문화 운동의 영향에 의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체육의 개념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체육의 외연과 내포에 대해 일부만으로 포함한 체육의 여러 개념들이 공존하고 있기에 일반화된 개념의 정립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학자들마다 체육

의 개념이 다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운동이나 스포츠 대신에 체육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체육은 교육을 포함한 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체육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교육과 학문을 통합한 개념으로 규정하는 국내 학자들의 체육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sup>5)</sup>

1. 이래화(1981)

“체육이란 적절한 신체운동을 매개로 해서 인간의 생활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2. 김영환(김대식, 김영환, 1984)

“체육은 첫째 스포츠를 포함한 신체활동이고, 둘째 운동생리, 신체역학, 운동학습 등 체육과학의 이론과목, 셋째 전문적 성격을 지닌 체육 실기 지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3. 김현덕(1987)

“체육이란 개인의 요구에 의한 사회적·교육적 현상으로서의 신체활동과 그 문화의 변화이다.”

4. 정응근(1990)

“체육이란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화된 인간을 형성하거나 그 일련의 과정에 관한 연구 활동이다.”

5. 김정행(1996)

“체육은 운동이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의해서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6. 최의창(1996)

“체육은 스포츠, 기타 운동이 인간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을 기대하고 실시하는 활동이다.”

---

5) “신현규(2008).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의 정의를 찾아서. 한국체육철학학회지. 제16권 제1호. 79-98”에서 발췌하였음.

7. 김두원·원주연·김윤태(2003)

“체육이란 인간의 신체활동 중에서도 대근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에 의한 신체를 위한 교육이다.”

8. 하남길(2004)

“체육은 계획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전인교육의 한 영역이자 인간 움직임 현상을 탐구하는 한문의 한 영역이다.”

9. 김동규(권동욱, 임승현, 남경완, 2006)

“체육은 인고의 덕을 과정으로 해서 결과에 목적을 두는 행위이다.”

10. 안용규·김홍식(2006)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해 행해지는 교육, 또는 인간의 운동을 통한 개인 변화의 총체이다.”

11. 권동욱·임승현·남경완(2006)

“체육은 대근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개인의 특성과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된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인간을 형성시키는 작용과 사회적 정서적으로 풍부한 인간 형성이 가능한 교육이다.”

“체육은 인간이 신체적 활동, 즉 대근육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인 동시에 신체에 의한 교육이다.”

12. 국민체육진흥법(문화관광부, 2007)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이라는 용어에 교육이란 의미가 담겨있다는 고정화된 사고방식에 의해 체육을 교육에 국한하여 정의하고 광의의 개념으로 체육이란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체육이 상황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체육의 다의성을 인정하고 광의적 개념으로서 체육의 외연을 확장하여 앞에 제시된 체육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참고하여 종합하면, “체육은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운동을 통한 개인 변화의 총체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된 문화적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운동을 통한 의도된 문화적 행위’로 체육의 개념을 규정하면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은 ‘체육교육’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체육’의 영문은 ‘physical education’이며 뒤의 ‘교육’의 영문 또한 ‘education’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체육교육’이란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사회적 언어로 이미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에 ‘체육’이 사용되는 범주를 고려할 때 교육에서 체육은 ‘체육교육’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보면, 교육은 개인의 문화전달과 갱신과정을 포함하는 활동(김경식, 1997),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유의적, 구체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도하는 문화작용(남상문, 2008), 인간의 내적 가능성을 이끌어 내고 이를 구체화, 현실화, 문화화 시키는 일(임일남, 이병헌, 윤길근, 정황순, 2009)이라고 한다. 즉, 교육 활동은 학습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지적인 안목을 갖도록 해주며, 도덕적으로 온당하게 실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대현, 김석우, 2003).

따라서 “체육교육은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운동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변화시키는 총체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는 의도된 문화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체육’은 제목 자체에서 ‘운동교육’과 ‘스포츠교육’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체육교육’으로 간주함이 적절할 것이다.

### Ⅲ. 운동의 개념<sup>6)</sup>

운동(movement)이란 단어는 체육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적 운동, 사회적 운동, 천문학적 운동, 기계적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동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으로, 체육과 관련하여 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운동 개념의 계층성, 운동계슈탈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운동 개념의 계층성

체육에서 사용하는 운동의 개념에 대한 계층성을 명확히 하여 운동이 지닌 다의적 의미를

6) “김문준(1990). **운동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태근”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살펴보고자 한다.

체육에서 운동의 개념은 3가지의 계층을 나누어 성격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활동 전체를 지칭하는 개념

‘평생운동’, ‘운동의 생활화’, ‘맞춤운동’, ‘수중운동’, ‘운동경기’ 등과 같이 생물학적, 교육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신체활동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신체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나. 어떤 특정 영역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종목을 지칭하는 개념

‘육상운동’, ‘수영운동’, ‘철봉운동’ 등과 같은 표현이나 ‘축구’, ‘농구’ 등과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신체활동 전체에 포함되는 어느 특정 영역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종목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종목에 포함된 ‘패스’, ‘슛’, ‘킥’, ‘드로우’와 같이, 각기의 스포츠 종목과 운동영역의 특정한 행동과제를 달성하는 어떤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즉 여러 가지로 다른 다양한 운동의 방식이 포함하되 운동자와 그것을 둘러싸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추출되어, 이에 따라 다양한 운동과정의 전체가 하나의 기본적인 행동 방식으로 통합되는 높은 추상 레벨에 위치한 운동 형태로 ‘패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운동과정을 실제로 찾아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체의 공간적 위치 변화를 지칭하는 개념

특정한 스포츠 종목이나 운동영역에서 쓰이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운동연습 목표에 대해 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농구의 ‘체스트 패스’와 배구의 ‘오버핸드 패스’는, 패스라는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각각의 스포츠 종목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여 그 구체적인 운동과정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서 운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시공간적·역동적인 전개에 있어 어떤 특징적인 운동과정을 나타내는 행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체육의 영역에서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어떤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여 두지 않으면, 그 의미 내용이 혼란을 일으키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2. 운동형태(Gestalt)

게슈탈트(Gestalt)는 부분이 모여서 된 전체가 아니라, 완전한 구조와 전체성을 지닌 통합된 전체로서의 형상과 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의 운동은 부분적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전체구조를 나타내는 ‘운동게슈탈트’로 보아야 한다. 즉, 운동은 단순한 신체의 활동만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행동형식으로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할할 수 없는 운동 행위로서 가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게슈탈트는 운동 행위 주체인 인간이 신체를 사용하여 어디서 어떻게 힘을 넣고 또 빼고, 어떠한 방식과 리듬으로 자세와 동작을 변화시키는가하는 문제로 자연과학의 세계에 관련되는 일이 아니다. 운동게슈탈트는 인간의 운동 형식을 공감에 의하여 그 역동적 느낌을 알고, 그것에 의하여 지각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상호 간섭되는 특성을 갖는 분절화된 전체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텐디크(Buytendijk, F.J.)는 ‘말해지는 말이 소리되면서 동시에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이 인간의 운동도 양의적 현상을 부각시켜, 단순한 인과율 만으로서는 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동을 ‘신체적 훈련이나 노력, 또는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운동의 계층성과 운동게슈탈트를 통해 운동의 개념을 정리하면, “운동은 ‘신체활동 전체’, ‘어떤 특정 영역의 신체활동이나 스포츠 종목’,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체의 공간적 위치 변화’의 각기 다른 수준에서 추상적이거나 가시적인 형태의 신체활동으로, 운동 행위 주체인 인간이 신체를 사용하여 운동 형식에 공감하여 그 역동적 느낌을 알고, 느낌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 상호 간섭되는 특성을 갖는 분절화된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 또한 ‘육체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신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운동은 시간과 공간에서의 신체의 가시적 위치변화인 동시에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정신적, 신체적 기능과정의 총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체적 능력이나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순운동 또는 일련의 운동과정을 반복하는 일로 객관화된 형식을 갖추고 도구적, 탐색적, 표현적, 자아 형상적 의미를 지닌 독자적인 인간운동이다.

## IV. 스포츠의 개념

‘체육’과 ‘스포츠’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애매하게 자주 혼동되게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sports)는 실제생활을 벗어난 기분전환이나 만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적인 모든 신체활동을

의미하며 ‘운동경기’를 뜻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경쟁이 따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는 외면적 형태에 있어 인간 활동 가운데 정신적, 정서적 활동을 배제한 신체기능, 신체기량, 또는 신체발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임변장, 2010). 스포츠는 신체적 동작을 주로 하는 활동으로 건강유지와 경기 및 기록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스포츠란 일반적으로 시합, 경쟁 경기를 의미하며 스포츠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1. 쿠베르탱(1922)

“스포츠는 진보의 욕망이 받쳐주는 위협에까지 이룰 수 있는 강도 높은 근육질의 노력에 대한 습관적이고도 자발적인 숭배이다.”

2. 질레(1948)

“스포츠는 하나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놀이와 투쟁, 강도 높은 신체 행위의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3. 뒤마제디에(1950)

“스포츠는 공통으로 채택한 규정을 따라 신체의 자질을 즐기고, 개발 및 유지하며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인간이 실행하는 신체 활동의 표명이다.”

4. 호이징아(1950)

“스포츠는 자유롭게 정해진 규칙을 따르며 일상의 생활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지는 자발적인 활동과 행위이다.”

5. 부에(1968)

“스포츠란 여가의 제도화된 활동이다. 원초적인 육체의 참여와 엄격히 전문화된 구조를 경쟁적인 양식에 따라 성과를 오나수하고, 활동 자체를 위해 연습하는 것이다.”

---

7)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학교 스포츠개론**. 한국체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서울: (주)교학사.”의 스포츠 개념 정의에 기술된 내용임.

6. 로이(1968)

“스포츠는 신체 역량의 발휘가 필요한 조직화된 게임이다.”

7. 메니스(1969)

“스포츠는 인공적인 특별한 상황으로 생각되며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나 미리 결정된 의도를 달성한 일련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서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시·공간 속을 신체로 움직이는 것이다. 또, 목표의 미달이나 실패를 포함하여 달성과 성공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8. 브룸(1976)

“스포츠는 경쟁적 활동의 제도화된 체계이다. 그 활동을 주도하는 육체를 따라 제한되고, 약호화되고, 관습적으로 규정된다. 스포츠의 목적은 성과와 탐험, 시위, 신체의 활약상과 비교에 의해 최고의선수와 최고의 기록을 등록하는 것이다.”

9. 거버(1979)

“스포츠는 인간의 활동으로서 목적을 규정하고, 행동 양식을 제한하는 규칙의 역사적 배경과 특별한 관리 조직을 가진다. 스포츠는 경쟁과 도전, 신체 역량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명백한 결과를 포함한다.”

앞에서 제시한 스포츠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정리해 보면, 스포츠는 신체 활동, 규칙, 경쟁, 도전, 제도화, 성과, 기록 추구라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결국, 스포츠란 “공통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여 성과와 기록 추구를 목표로 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V. 체육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서 살펴본 내용의 관점에서 체육교육과 운동교육, 스포츠교육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체육교육은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운동을 통해 학습자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변화시키는 총체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한 변화를 추구하

는 의도된 문화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운동교육은 '신체적 훈련이나 노력, 또는 운동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육체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는 신체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시간과 공간에서의 신체의 가시적 위치변화와 직접 관찰할 수 없지만 정신적, 신체적 기능과정의 총체를 의도적, 구체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교육은 '공통된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여 성과와 기록 추구를 목표로 하는 신체 활동을 매개로 인간의 가능성을 계획적으로 이끌어 내고 구체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문화 행위(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체육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체육을 어떤 외연과 내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운동교육이 될 수도 있고 스포츠교육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발표자는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교육과 관련하여 협의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운동교육이나 스포츠교육의 영역으로 국한될 것이지만 체육이란 용어의 '다의성'이 체육의 외연을 넓게 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경우 신체 및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운동과 스포츠는 물론 인간 움직임에 포함한 상호관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인(whole person)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안녕을 지향해야 할 것이나 운동이나 스포츠에 교육이란 용어를 결합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스포츠는 단지 교육재의 성격이 강하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체육을 운동교육이나 스포츠교육을 넘어선 이를 포괄한 그 이상의 교육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체육은 주로 운동기능을 위주로 행해지고 있고 운동이나 스포츠종목을 교육재로 활용하고 있어 운동교육과 스포츠교육을 체육교육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체육교육은 운동이나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바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덕체 교유의 한 축으로 행해져야 한다. 체육교육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3개 분야에 걸쳐 체육과 관련된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분야이다. 그 중 체육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체육은 운동 기능 중심과 신체활동 중심 가치를 넘어 학교체육은 실천적 건강영역으로서 건강습관을 위한 부분까지 확대되어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즉,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으로써 인간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교육은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볼 수 있다.

## Ⅵ. 나가며

체육에서 어디에 기반을 두고 교육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즉, 체육전문가들이 체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나 철학에 따라 체육교육은 운동교육으로, 스포츠교육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체육’이란 단어를 대신하여 ‘운동’, ‘스포츠’를 넣을 때, 용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할 때 ‘체육’이란 단어처럼 포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운동사협회에서는 ‘체육’보다 ‘운동’이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를 잘 알면서도 오늘 토론에 체육, 운동, 스포츠라는 유사한 뜻을 지닌 단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체육’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발표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대한운동사협회 세미나라서 ‘운동’에 치중한 관점에서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세미나의 논의를 통한 발전을 도리어 저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운동이 체육보다 포괄적이다.”라는 말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체육보다 운동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하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운동’이란 단어가 ‘체육’보다 더 포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에 대한 현재의 담론보다 더 심층적이며 넓은 의미로 표현되고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어떻게 대중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운동’의 관점에서 체육교육을 보는 사람들이 ‘체육’ 대신 ‘운동’이란 표현이 사용될길 선호한다면 ‘운동’의 포괄성에 대한 논리가 더 많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는 세미나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강유원(1999). **체육원리**. 서울: 도서출판 태근.

강유원(2001). **스포츠 철학**. 서울: 도서출판 태근.

교육과학기술부(2011). **고등학교 스포츠개론**. 한국체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서울: (주)교학사.

- 김경식(1997). **교육학개론**. 서울: 교문사.
- 김대현, 김석우(1996).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 김문준 편저(1996). **운동학 강의**. 서울: 도서출판 태근.
- 김정행 역(1996). **체육원리**. 서울: 도서출판 태근.
- 김창룡, 지동철(2006). **스포츠 철학**.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
- 남상문(2008). **교육학개론**. 서울: 선인.
- 박주한(2010). 신체운동(Sports & Exercise)의 새로운 가치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18권 제3호, 93-106.
- 박현우(1992). 체육의 개념과 신체관의 문제. **한국체육학회지**. 제31권 제2호, 75-80.
- 송형석, 이재성 편저(2004). **현대 독일스포츠철학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
- 신규현(2008). 체육(體育, PPhysical Education)의 정의를 찾아서. **한국체육철학회지**. 제 16권 제1호, 79-98.
- 유정애, 김선희(2007). 왜 스포츠 문화 교육인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4호, 169-181.
- 이병승(2006). **교육에 관한 철학적 답론**.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이행원(2003). 전통적 신체관의 분석 및 대안.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1권 제1호, 61-94.
- 임번장(201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 장성수(2010). 체육교육론 정립을 위한 신체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제18권 제1호, 127-144.
- 진윤수, 조민행, 이문숙, 안진규(2005). 스포츠에서의 앎(Knowledge).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24호, 135-144.
- 한태룡, 박버현, 한승백, 탁민혁(2010). **스포츠사회학**. 서울: 레인보우북스.
- 함정혜(1996). 체육·스포츠·사회체육의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0권, 51-61.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 에 대한 토론

문호준(서원대학교)

## I. 들어가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반면 건강 문제, 환경 문제와 같은 개인적,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한 심리적, 생리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과 보람을 향상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학의 학문적 체계와 체육과의 관계 그리고 운동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가 대한운동사협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건강증진, 질병예방, 의료비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체육전공자의 직업 확대 및 취업 활성화 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자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운동학에 대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발제자의 원고는 체육과 체육교육, 운동의 개념, 스포츠의 개념, 체육교육은 어떠한 교육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체육교육은 운동이나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바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인교육을 목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교육의 한 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체육, 운동교육인가 스포츠교육인가 그 이상인가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 II. 본문에 대한 토론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원고에서 체육과 스포츠의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차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체육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한 영역으로, 스포츠는 운동종목을 총칭하는 용어로 이용되고 있다. 체육은 스포츠를 교재로 이용하지만 그렇다고 체육이 스포츠인 것은 아니다. 체육을 지배하는 것은 교육의 논리이지 스포츠의 논리가 아니다. 체육에 있어서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매개체이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는 것이 체육을 하는 것일 수가 없다. 스포츠에는 스포츠 자체의 논리가 있고, 체육에는 체육의 논리가 있다. 예를 들면 테니스 경기(스포츠)에서 어떤 선수의 태도가 어느 정도 비스포츠맨적(비교육적)일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그가 얻은 득점을 무효화 할 수 없다. 즉 스포츠경기에서는 태도의 좋고 나쁨, 도덕적·비도덕적임에 관계없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득점이 많은 사람이나 기록이 좋은 사람이 승자로서 인정된다. 테니스경기를 지배하는 것은 지극히 사실적인 득점을 토대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스포츠의 논리이지 규범적으로 올바른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것이다.

한편 동일한 테니스 일지라도 체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논리가 철저히 교육이 된다.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교사가 존재하며, 그는 인간교육을 목적으로 테니스를 지도하게 되며, 득점의 많고 적음 또는 경기에서의 승패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승패의 경험은 오직 교육적으로 의미 있을 때만 중요하게 여겨질 뿐이다. 즉 교육활동으로서의 테니스는 스포츠 논리가 지배해서는 안 되며, 거기서 스포츠의 논리는 오직 교사가 인정하는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도입되어 질 수 있고 이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체육이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설령 교사가 부재중일지라도 학습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송형석, 2006).

이와 같이 체육은 신체발달만을 돕고, 체격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며, 근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어떤 운동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것만이 아니다. 체육은 바로 인간 움직임의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운동은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건강 체력의 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신체활동의 하나인 것이 반하여, 스포츠는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과 일정한 약속 아래 기능의 성취도를 겨루거나 득점수를 겨루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Ⅲ. 나오며

체육은 건강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 증진 그리고 사회성 함양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인 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해왔다. 또한 학교체육이 신체활동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며 그 결과 생활체육의 확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육학은 응용학문이고 응용 학문의 정체성은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응용학문은 특성상 세분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과 현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학문대상이 복잡해질수록 응용학문의 하위영역은 점점 세분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학문의 세분화가 체육학의 양적 팽창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하위 영역들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세분화된 하위영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연구결과들이 공통의 학문대상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된 지식체계로 존재할 때만 그 응용학문의 정체성과 영속성이 지속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학의 과도한 분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에는 총체적인 통합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활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며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유원(1997). **체육철학**. 서울: 도서출판 태근.
- 송형석(2006). **함께 읽는 체육·스포츠 이야기**.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송형석, 이재성 편저(2004). **현대 독일스포츠철학의 흐름**.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
- 최의창(2003). **스포츠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



### 발제 3

## ‘운동학’ : 체육의 학문적 대안

발제: 김정명(명지대학교) ..... 43

토론: 송형석(계명대학교) ..... 53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운동학’ : 체육의 학문적 대안

Kinesiology: An Academic Alternative of Physical Education

김정명(명지대학교)

## 문제의 제기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면, “인간 운동학(human kinetics)라고도 알려진 운동학(Kinesiology)은 인간 움직임(human movement)의 과학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은 과학적 연구 분야로 취급되고 캐나다에서는 정제된 건강전문분야로 하나로 언급된다”(Wikipedia, 2011)라고 운동학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다. 물론 아직까지 한글판 위키피디아에는 ‘운동학’이란 용어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운동학의 정의가 불필요해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 분명한 학문적 패러다임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학문과의 관계에서 학문적 경계와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학과의 관계에서 운동학은 아직까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체육학 및 체육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대한운동사협회’라는 단체를 형성하여 운동사를 배출하면서 체육학 분야의 직업적 대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2010년 그 모임을 모체로 ‘운동학회’를 설립함으로써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서 ‘운동학’을 공식 선언하고 나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관련분야의 변화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10년 10월 9일에 미국에서 체육학의 과학적 접근을 주도하던 ‘American Academy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이하 AAKPE)가 ‘National Academy of Kinesiology’(이하 NAK)로 이름을 바꾸면서 오랜 기간 붙어있던 ‘Physical Education’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물론 NAK가 체육이라는 명칭을 삭제했다고 해서 거기에 속해 있던 체육학의 학문단위(academic unit)가 떨어져나간 것은 아니다. 아직도 ‘Physical Education’ 이나 ‘Physical

Activity'를 사용하는 대학이 상당수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표1>.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AKPE의 조사로 상위 20위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 박사과정 이 운동학이라는 학문단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이 AAKPE의 최근 개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 표1. Overall Final Score and Rank

University	Academic Unit	Rank	Score
Pennsylvania State U.	Kinesiology	1	66
U. of Connecticut	Kinesiology	1	66
Arizona State U.	Kinesiology	3	63
U. of Illinois Urbana-Champaign	Kinesiology	3	63
U. of Maryland	Kinesiology	3	63
U. of Massachusetts-Amherst	Exercise Science	6	62
Indiana U.	Kinesiology	7	59
Oregon State U.	Exercise & Sport Science	8	57
Teachers College-Columbia U.	Biobehavioral Sciences	8	57
U. of South Carolina	Exercise Science	8	57
Texas A&M U.	Kinesiology	11	56
U. of Minnesota	Kinesiology	11	56
U. Texas-Austin	Kinesiology	13	54
U. of Georgia-Athens	Kinesiology	14	52
U. of Houston	Human Performance	15	50
U. of Illinois-Chicago	Kinesiology	15	50
U. of Wisconsin-Madison	Kinesiology	15	50
Michigan State U.	Kinesiology	18	48
U. of Michigan	Kinesiology	18	48
Iowa State U.	Human Performance	20	47
Louisiana State U.	Kinesiology	21	46
Ohio State U.	Physical Activity & Educational Services	22	43
West Virginia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22	43
Purdue U.	Kinesiology	24	42
U. North Carolina - Greensboro	Exercise & Sport Science	24	42
U. of Oklahoma	Sport Science	26	41
U. of Utah	Exercise & Sport Science	26	41
Auburn U.	Human Performance	28	40
Texas Woman's U.	Kinesiology	29	38
U. of Mississippi	Exercise Science	30	35
Florida State U.	Sport Management, Recreation Management, & Physical Education	31	34
North Dakota State U.	Exercise Sciences	32	28

출처: NAKPEH

이러한 미국운동학계의 개명과 우리나라 운동학계의 창립이 일치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체육의 학문화가 이제 운동학(Kinesiology)이라는 대안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과 기존의 체육학과 의 명확한 관계설정 없이 '체육' 대신에 '운동'을 갖다 붙인 학문화라면 60년 대 이후 미국체육 학계가 경험했던 정체성문제와 분열상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운동학회의 창립과 함께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 나타난 운동학과 체육학 및 체육현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운동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과거 체육의 학문화 과정상 제기되었던 문제를 찾아보고, 둘째, 체육의 학문화와 체육현장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서 '운동학'의 위상정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1. 체육의 학문화과정

1960년대 초반 전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학자 Conant와 미국 체육학회 사이에서 신인으로 벌어졌던 체육의 학문적 타당성 논쟁이 기폭제가 되어 미국에서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때 Conant는 체육을 중요한 전인교육의 교과로 인정하지만 박사과정을 개설할 학문적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이다(강신복 & 최의창, 1993).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 주요대학에 박사과정이 만들어졌고 5년마다 한번씩 AAKPE가 주관되어 박사과정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수준까지 학문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문분야 평가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으로 알려진 국립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이루어지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인 서베이에는 아직 체육학/운동학이 제외되고 있다. 타학문에 비하여 연구의 질이 문제가 된 것은 물론 아니다. 연구의 질은 미국의 학문 공동체(academic community)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여 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타학문분야로의 이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지난 50년 간 미국체육학계의 학문적 성장을 고려할 때 NRC의 보수적인 입장은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AAKPE는 최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RC와 끈질긴 교섭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Thomas & Reeve, 2006: 176).

대학/학문 간의 세력싸움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치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밖으로 나타난 NRC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주된 명분은 연구의 초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에는 운동학이나 체육학의 관점에서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총 61개 있다. 이들 대학 중 약간은 전통적인 운동학/체육학이 아닌 분야의 프로그램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박사과정 총 프로그램의 수는 69개로 집계된다(Thomas et al., 2004). 그런데 최근 University of Colorado, University of Oregon, 그리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등은 스스로를 '통합 생리학'(Integrative Physiology), '인간생리학'(Human Physiology), '생체운동학'(Biokinesiology) 전공이라 호칭하며 다른 행보를 걷기 시작 했다(Thomas & Reeve, 2006: 177). 또한 현재 AAKPE에 속해 있더라도 운동학과 다른 학문적 포커스를 갖고 있거나 AAKPE의 평가에 불만을 갖는 대학은 AAKPE(현 NAK)를 떠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학문적 전문화 과정에서 학문의 초점이 다양해지고 소위 모학문으로 떠나가는 현상이 계속되는 한 운동학/체육학이 정체성을 갖는 학문분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다(Gim, 1989; 정응근, 1992; 김정명, 1997). 세분화하는 과학의 본질상 체육의 과학적 전문화는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학문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하위학문은 다시 독자적인 영역이나 소위 모학문으로 기울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학, 공학 등 다른 응용과학분야는 세분화하면서도 자체학문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독 체육학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학문이 갖고 있는 사회적 기반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건강, 의료분야 등으로 사회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든든한 의학 같은 분야는 연구분야가 세분화되면서도 자체학문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체육의 사회적 기반은 학교체육으로부터 시작되어 스포츠 및 건강산업이 번창하면서 그 기반이 확장되는 가운데 기존의 체육교육의 학문적인 초점을 유지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당수 대학이 이분법적인 용어인 체육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운동학(Kinesiology),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인간운동학(Human Kinetics), 스포츠 과학(Sport Science), 움직임교육(Movement Education), 움직임 예술(Movement Arts)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학문의 초점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학문화 과정의 이 지루한 싸움에서 판정승을 한 분야가 인간의 움직임(Human Movement)에 학문의 초점을 맞춘 운동학(Kinesiology 또는 Human Kinetics)이다. AAKPE가 'Physical Education' 부분을 떼어내면서 NAK로 바꾼 것도 학문의 포커스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하는 전략적인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학문화 과정상의 사건이다. 체육의 학문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를 거의 답습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이지만 학문적, 문화적 토양이 다른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르다. 상대적으로 학문 간, 학과 간의 장벽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체육학'이라는 우산은 전통적인 체육 분야를 포괄하면서 체육학회라는 이름으로 체육의 학문화를 이끌어 왔다. 내용적으로는

운동학, 운동과학, 스포츠과학 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적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체육교육적 입장을 지지하는 학문화 과정이 흔들림 없이 체육학회 내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여 왔다. 과학적 객관화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 ‘주체적인’ 몸의 학문으로서의 ‘소매틱스’(Somatics)가 체육의 학문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체육의 과학적 흐름이 급물살을 탈 때에도 제기 되었다(Hanna, 1983; 정응근, 1991). 또한 최근 ‘인문학적 체육 교육’주장이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학문화의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체육의 전인교육적 시도로 해석된다(최의창, 2009).

우리나라에서 체육의 학문화과정의 또 다른 양상은 체육학회 내의 분과학회들이 공조를 통해 학문적 포커스를 맞추어 보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체육학의 하위영역들의 세분화로 각 영역들의 분열상에 위기감을 느낀 운동과학 계열의 하위영역들 즉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운동심리학 등의 연구자들은 소위 ‘스포츠과학’이라는 현장중심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한 통합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전태원, 1995). 그러나 이러한 공조 노력도 각 영역 간에 이미 깊이 파여진 전문화(specialization) 골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난관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창립된 ‘운동학회’는 바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 2. 체육의 학문화와 체육현장의 문제

체육의 학문화 과정상의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운동학’도 체육의 학문적 대안이 되기는 고사하고 잘해야 ‘체육학’의 우산 아래 하나 더 늘어나는 ‘분과학문’으로 머물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현재 한국체육학회 내에 들어 있는 분과학회를 살펴보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이 부분은 ‘체육학’과의 관계설정에서 추후논의).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우리는 우선 그 난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 첫 번째 난관은 학문의 초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운동학은 그 이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운동(exercise)이나 인간의 움직임(movement)이 초점이 되는 학문 분야이다. 그러나 이 학문적 초점은 전통적으로 체육이 접하는 있는 사회적 기반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움직임은 체육의 전통적인 영역인 스포츠, 게임, 레크레이션, 무용, 건강, 신체운동 등의 공통요소이기는 하지만 체육교육이 시작점이 되어 학문의 틀을 갖추어나간 우리나라 체육학의 핵심영역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과학주의를 기초로 체육의 학문화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래에 체육에 속해있던 여러 영역이 체육학의 우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일부 체육학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술분야로 떠난 무용학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청소년학과 같이 최근 인문 사회 분야에 만들어진 일부 신생학문 분야들도 내용적으로 보면 모두 체육학의 우산 아래 있어야 하는 분야들이다. 그러나 비록 전통적인 체육과 유리되더라도 운동과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로 제반 체육 분야를 지원하는 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전태원, 1995: 3).

두 번째 난관은 학문화의 관건인 연구의 질적 문제이다. 과거에 비해 체육학 분야의 연구역량, 특히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운동과학 분야의 연구 질은 국내외적으로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학문분야 이상의 연구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체육학 분야의 교육과정에서 볼 때 이러한 연구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동학의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운동역학을 가르치는 교수의 고백을 들어보자(신인식, 1991: 2).

대학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 하위 전공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시키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운동역학의 경우에는 그 여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운동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물리와 수학을 공과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수준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인간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일을 공대출신에게 양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고백이 있는 후 10년이 지난 지금 운동학을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적인 배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세 번째 난관은 사회적, 직업적 기반 마련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체육관련 직업은 전통적인 체육교사이외에도 스포츠, 건강사업 분야의 확장과 함께 그 수요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체육 관련전공도 급속히 팽창하였다. 그러나 양적인 증대가 질적인 향상을 가져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분야에 기능적,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체육관련 전공자들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체육관련 계열은 학교 졸업장 이외에 사설 자격증이 범람하는 분야가 되어 버렸다. 대한 운동사협회가 주관하는 '운동사' 자격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기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난관은 기존 '체육학'과의 관계설정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

이 우리나라에서 체육의 학문적 대안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회가 만들어질 때 기존의 체육학이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학문적 ‘대안’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단 체제가 정비되면 그 이상의 학문적 당위성을 찾는 노력을 포기한다. 가령, 사회체육학회의 경우 서울 올림픽 이후 생활체육활성화라는 국가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전통체육의 대안 학회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작금의 해당학회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체육학회지와 비슷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을 뿐, 학회가 지향하는 학문적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15개 한국체육학회의 하위분과학회이면서도 다른 분과학회와 차별화되지 못하는 애매한 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체육학계가 과학주의의 패러다임으로 학문화과정에 박차를 가해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패러다임이 체육계에 필요했지만 사회체육학은 그것을 명확히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기존의 체육학과와 관계 설정에서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체육학회를 주도해나가는 인사들의 대부분이 체육학 전공 출신자들인 만큼 대부분이 체육학적 패러다임에 익숙한 나머지, 기존 체육학과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아무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이 창립된 운동학회의 경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운동학’의 위상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 3.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서의 ‘운동학’

학문적 대안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학문적 초점이 분명하고 자체의 학문적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학문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체육계열 전공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전통적인 실기분야로 출발한 체육이 학문화과정을 통하여 지나치게 주지화(主知化)한다는 데 있었다. 이런 가운데 대학원과 연구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등 과학적, 학문적 역량은 늘어난 반면 그것을 수용할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한계가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실용적 지식과 기능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는 외면된 채 수많은 이론가, 연구자들을 배출하는 기현상이 기존 체육학의 학문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운동학’이 체육의 학문적 대안이 되는 대의명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 기존 한국체육학회 내의 운동학 관련학회들이 개별적으로 전문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동학은 운동과학 분

야를 실용적인 목적으로 통합하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일은 운동사 자격을 만들어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온 대한운동사협회가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모체로 하여 설립된 운동학회는 기존의 체육학회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세분화된 개별과학적 연구보다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져야 한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운동사나 다른 체육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체육학 내에서의 과학적 접근은 인간의 움직임이 얼마나 통합적인 현상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소경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각자의 관점에서만 체육과 움직임을 논할 뿐이다. 이에 따라 체육현장과 학문과의 괴리는 더욱 깊어진 느낌이다. 이러한 사이 다른 과학계에서는 '뇌과학,' '인지과학,' '몸학'(somatics) 등의 이름으로 이미 인간 움직임에 대한 통합과학적 모델을 제시하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운동학은 인간 움직임의 신경학적, 생리학적, 역학적 메커니즘임과 동시에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메커니즘임을 통합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통합하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체육학계에서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수도 없이 진행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적은 거의 없다. 여기서는 두 가지 통합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 첫째 모델은 연구의 초점이 현장중심의 실용적 연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하위학문 별로 소위 '연구를 위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었지만 현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실용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 통합적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에 운동과학이 기여하게 된 것도 이러한 통합적 노력의 결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의 실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통합을 시도한다면 적어도 운동학 석박사과정은 이공계과목에 탄탄한 기초를 갖춘 타학과 출신에게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야 한다. 현재 북미에서 취하고 있는 운동학(Kinesiology) 통합모델이다.

또 다른 통합화 모델은 몸학(somatics)적 모델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움직임을 객관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러 학문적 측면이 고려된다. 그러나 수행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로 통합되어있는 사건이다. 기존의 생물학, 생리학, 역학, 심리학 등이 개별적인 접근으로 인간 움직임과 행태를 객관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하였다면 몸학적 모델에서는 다른 카테고리 통합적 데이터가 만들어진다(Hanna, 2003). 그것은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즉각적인 사실이 되며 그 축적된 결과는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고도의 객관과학적인 연구역

량이 없더라도 자신의 체험을 여과 없이 기술해내는 능력만 갖추면 객관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찾아내기 어려운 체험 데이터인 'somatic data'를 만들어낸다. 이미 의료계통에서 이 모델의 실효성에 착안하여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 등의 이름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지식체계(the body of knowledge)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운동 등의 직접체험에 익숙하지 않은 의학 등 타과학 분야의 연구인력보다는 이에 익숙한 체육인들에게 이 모델이 더욱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실기인들의 연구의 질적 문제를 향상시킬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로 방향을 맞추든지 아니면 두 모델을 같이 활용하든지 간에 '운동학'이 체육의 실용학문적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사회적 기반은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운동학회의 경우 '운동사'라는 뚜렷한 검정자격자를 배출하는 만큼 현장 건강, 의료, 복지계는 물론 학교 현장에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운동사'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해서 미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운동학이 체육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체육학은 1953년 한국체육학회의 설립과 함께 그동안 체육의 학문적 바탕으로 체육계를 이끌어 왔다. 그동안 체육학회가 우리나라 체육발전에 공헌한 부분을 여기서 논의 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좋은 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듯이 지금의 체육학의 학문적 전통과 구조상 수용하기 어려운 부족분이 존재한다.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서의 '운동학'은 체육학의 부족분인 통합성과 실용성, 현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생하는 분야로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결어

이렇게 우리는 '운동학'을 체육의 학문적 대안으로 내세울 때 그 정체성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Kinesiology'의 정의만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운동학'의 실용학문적, 통합학문적 특성을 모두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위키피디아의 한국어판에는 "인간 운동학(human kinetics)라고도 알려진 운동학(Kinesiology)은 인간 움직임(human movement)의 과학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은 과학적 연구 분야로 취급되고 [한국과] 캐나다에서는 정제된 건강전문분야의 하나로 언급된다" 라는 해석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 가운데 운동의

직접체험능력이 바탕이 되면서 몸과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 관찰 능력을 갖춘 전문가-트레이너, PT(Personal Trainer), 운동 요법사(Movement Therapist)- 등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들을 키워내는 전문적 시스템이 하나의 학문적 근거로 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하나의 학문적 대안으로서 출발한 운동학은 이러한 학문적 요구를 충족하며 보건 복지 현장에 이바지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강신복, 최의창(1993). 체육교육학문화운동과 실증주의 교육학의 성립. 서울대학교 연구소논집, 6, 50-57.
- 김정명(1997). 체육학의 정체성과 그 방법론에 관한 초방법론적 고찰. 한국체육학회, 36(3), 1-19.
- 신인식(1991). 체육과의 교육과정 재고를 바라며. 체육연구소보, 25, 1-2.
- 전태원(1995). 체육계 학과 명칭정립의 필요성. 체육연구소보, 33, 1-11.
- 정응근(1991). 동서체육사상의 비교연구. 체육연구소보, 26, 1-4.
- 정응근(1992). 체육학의 새로운 접근. 체육연구소보, 28, 1-4.
- 최의창(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48(6), 243-260.
- Gim, J. M. (1989). Physical education as "artful know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Thomas, H. (1983). Physical education as somatic education: A scenario of the future, a paper presented the Big Ten Body of Knowledge Conference, the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io.
- Thomas, H. (2003). What is Somatics? Somatics(Spring/Summer), 50-55.
- Thomas, J. R. & Reeve, T. G. (2006). A review and evaluation of doctoral programs 2000-2004 by the American Academy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Quest, 58, 176-196.
- Thomas, J. R., Morrow, J. R., & Stevermer, C. (2004). Evaluating doctoral education in physical activity: Role of the American Academy of Kinesiology and Physical education, Quest, 56, 361-376.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 ‘운동학’ : 체육의 학문적 대안” 에 대한 토론문

송형석(계명대학교)

김정명교수의 발제원고 “‘운동학’: 체육의 학문적 대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학이 체육학의 학문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 방향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학술대회의 주체인 운동학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정명교수가 여러 쪽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다른 사회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체육 영역 역시 근대 사회의 주도적 추세인 학문화 과정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결과 체육학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명교수는 이 과정을 ‘Conant교수와 미국체육학회 사이에 있었던 학문성 논쟁’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대학 내 체육 분야의 학문성 결여를 비판한 Conant교수의 도전에 미국의 체육학자들은 체육 영역을 학문화시키려는 노력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체육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정명교수에 따르면 체육학은 학문화과정을 통해 학문공동체 내에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습니다. 김정명교수가 약 다섯 쪽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체육학의 문제는 크게 과학화(체육의 주지주의화)와 세분화(학문적 전문화)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분리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며 또 다른 현실적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화는 체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수행자의 ‘생생한 체험’, 주관적 경험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며, 체육학 하위분과의 세분화는 연구의 초점을 분산시킴으로써 그 현장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김정명교수의 분석입니다. 그 결과 앎과 삶, 지식과 행위, 이론과 현장, 분과학문과 분과학문 등이 서로 괴리되어갔고 그와 병행하여 체육학은 더욱더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책임 있는 체육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체육학을 미학(감성의 학문)화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나 세분화된 하위학문들을 통합시켜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러한 대안에 속합니다. 그러나 김정명교수는 이러한 대안들이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오히려 체육학 및 그것이 생산하는 학문적 지식과 현장(건강, 여가, 재활 등등)에서 필요로 하는 실천적 지식 간의 괴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간다는 것이 김정명교수의 문제인식입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터하여 운동학의 역할에 주목합니다.

김정명교수가 말하는 운동학은 단순히 체육학의 하위분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운동학이라면 이론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정명교수는 사회체육학의 사례가 이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운동학은 기존 체육학에 부수하는 보완 또는 보충 학문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하는 **대안 학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학은 어떤 면에서 기존의 체육학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김정명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운동학은 운동과학 분야를 실용적인 목적으로 통합하여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과학적으로 세분화된 개별과학적 연구보다는 통합적이고 실용적인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운동학은 통합학문이라는 학문적 위상을 유지해야만 기존의 체육학과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학은 왜 통합학문이 되어야만 하고, 어떻게 통합학문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김정명교수는 ‘통합적이지 않은 기존의 운동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소경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각자의 관점에서 체육과 움직임을 논할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체육현장과 학문의 괴리는 더욱 깊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김정명교수는 통합의 방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모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연구의 초점을 현장중심의 실용성에 맞추는 모형입니다. 북미의 운동학(Kinesiology) 모형이 이에 대한 예에 속합니다. 둘째는 연구의 초점을 타자 관찰이 아닌 자기 관찰을 통해 운동체험을 기술(재현)해 내는데 맞추는 모형입니다. Thomas Hanna의 Somatics나 의학 분야의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 등이 이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형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든 통합모형의 원리를 따를 경우에 운동학은 기존의 체육학과는 달리 통합성, 실용성, 현장성을 지닌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김정명교수는 확신합니다.

본 논평자는 김정명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현대 학문의 추세가 점차 실용화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학문적 통섭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실용성과 현

장성을 지향하는 통합학문모형으로서 운동학을 제안하고 있는 김정명교수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본 논평자의 짧은 식견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부연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정명교수가 말하는 통합학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위 통합학문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학문방법 또는 관찰방법을 뜻한다면 과연 그러한 관찰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김정명교수는 기존 체육학의 하위학문의 관찰들을 소경 코끼리 만지는 식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근대의 모든 학문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또한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들, 예컨대 정치, 경제, 예술, 종교, 교육 등등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특정 관점에만 열릴 수 있을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경 코끼리 만지기 식일뿐입니다. 소경 코끼리 만지기 식은 학문이 극복해야만 방식이 아니라 학문 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며 따라서 감내해야만할 운명일 뿐입니다. 세계를, 체육현상을, 운동을, 코끼리를 그 실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신에게만 가능한 방법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한편 김정명교수는 기존 체육학적 연구에는 초점이 부재하다고 비판하고, 통합과학으로서 운동학은 실용성을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만일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 연구의 초점이고, 그것이 김정명교수의 제안처럼 실용성이라면 과연 ‘실용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문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도 실용성에 대해 ‘무엇을 위한 실용성인가?’ 라고 물었을 때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 및 운동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경기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20대의 선수에게 실용적인 운동학관련 지식과 퇴행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70대 노인에게 실용적인 운동학관련 지식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이상 논평자의 총평에 대한 김정명교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2011 운동학 신묘년 신년 학술 세미나

---

2011년 2월 18일 인쇄/2011년 2월 19일 발행/발행인·옥정석/편집인·정덕조/편집장·안근옥/발행처·대한운동사협회/  
제작대행·레인보우북스(02·872·8151)/대한운동사협회 사무국·(우)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67 강남상가 10동 304호  
전화 02·586·3813/3814 / 팩스 02·586·3819  
홈페이지 <http://www.kacep.or.kr> e-mail : [tokacep@hanmail.net](mailto:tokacep@hanmail.net)